"유물양식 치중 불교미술 연구 사실왜곡 초래"

엄기표씨 '청람사학'에 기고

불교미술사학계의 한 소장학자가 유물의 양식적 특징을 찾아 시대를 추정하고 고미술상에서나 통하는 가치를 매기는 데 열중하는 현 학계의 풍토를 비판해 주목된다.

화제의 인물은 엄기표씨(단국대 사학과 박사과정). 그는 한국교원대학교 청람사학회에서 발간한 〈청람사학〉 제3집에 '한국 불교미술사 연구 방법에 대하여'를 게재,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양식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며 "유물에 담겨있는 당대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씨에 따르면 한국 불교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각종 미술품과 관련된 문헌 기록이 부족해 정확한 조성 연대나 배경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 학계는 유적·유물의 공통된 특성이나 양식을 검증·비교하는 계량사학적 연구 방법론만을 활용하고 있어, 그것에 얽힌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가치를 소홀히 다루는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어 현 학계는 고려시대 불교미술을 통일신라시대에 비해 쇠퇴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대해 엄씨는 "기법이 떨어진 것이지, 불탑이나 불상 등의 성보에 대한 신심(信心)이 전대보다 못하지 않다"는 반론을 폈다. 고려시대 마애불은 통일신라시대에 못미치는 게 사실이지만, 몇몇 귀족들의 후원으로 조성된 마애불보다 서민들이 적극 참여해 조성한 고려시대의 마애불이 문화사적으로 더 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씨는 유적·유물의 연대와 개별적인 가치만을 연구하는 풍토에서 벗어나, 이를 포함한 선대의 불교문화의 양상을 복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엄기표씨는 "미술사학자는 고대의 불교미술품을 보면서 과거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현재 속에 과거를 투영할 수 있는 식견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진각종 회당학회 재창립을 위한 총회가 14일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진각종 회당학회 재창립

진각종 종조인 회당 종조의 가르침을 발들어 불교 및 밀교의 교리와 수행, 의식체계 연구를 목적으로하는 회당학회가 재창립됐다.

회당학회는 14일 진각종 총인원 대강당에서 열린 '회당학회 재창립 총회'에서 혜정정사(유가심인당 주교)를 학회장에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지난 92년 창립된 회당학회는 96년까지 매년 학술심포지엄 개최와 〈회당학보〉 발간 등을 해 왔으나, 97년 학회 내부 문제로 활동이 중단됐었다. 이에 지난해 6월 진각종 교육원에서 회당학회 재창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후 재창립을 준비해 왔다. 진각종은 회당학회를 종단이 지원·관리하는 학술신행단체로서, 폭넓은 계층을 수용하는 열린학회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임회장 혜정정사는 "회당종조의 가르침을 충실히 이어나가기 위해 6월 회당학보 5집 발간, 12월 학술발표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학회활동 재개를 통해 불교학을 활성화하고, 일반사회에 진각종을 알리는 기회를 삼겠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일제시대 30본산연합사무소 불교 교육-포교에 기여"

한동민씨, 한민족운동사 연구회서 발표

"1915년 제4회 30본산주지회의에서 설치된 30본산연합사무소의 운용은, 불교계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비하는 가운데 발생한 조직이었다."

근현대불교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제식민지 초기인 1910년대 한국불교계의 현실을 고찰한 논문이 18일 한민족운동사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소개됐다.

한동민씨(중앙대 강사)는 '1910년대 30본산연합사무소의 설립과 변화'에서 "30본산연합사무소 설치가 사찰령에 근거해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된 주지(住持)에 의해 이뤄지게 되었지만, 이러한 권한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해이해진 불교계의 기강과 사유재산에 대한 정리 등 불교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기여한 바도 크다"고 말했다.

특히 강학(講學)과 포교(布敎)라는 목표 아래 출범한 30본산연합사무소는 중앙학림(中央學林)을 비롯한 교육사업을 주요활동으로 삼았으며, 30본산연합사무소의 상임위원격인 상치원(常置員) 회의의 주요 의제가 중앙학림의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과 노력이 이후 불교 발전에 초석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대해진 주지의 권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1920년대 젊은 승려들에 의한 유신운동(維新運動)과 부딪치게 되었다면서 "30본산연합사무소는 이후 1922년 12월 30본산이 다시 공동으로 중앙기관인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을 설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 김순석씨(독립기념관 연구원)는 '1930년대 조선불교계의 심전개발운동' 논고를 통해 "일제가 1933년 국제연맹에서 탈퇴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이에 대한 위기감으로 농어촌 개발운동을 시작했으며, 이를 정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심전개발운동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제가 조선불교계를 심전개발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조선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잠재적 신도가 가장 많았으며, 더구나 조선시대에 탄압받았던 불교를 부흥시켜 조선통치에 이용할 때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강요된 심전개발운동은 일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이버공간도 화엄세계"

윤원철교수, '종교와 과학'에 발표

윤원철교수(서울대 종교학)는 최근 발간된 대우학술총서 〈종교와 과학〉(아카넷)에서 '사이버문화와 종교적 인식론'이라는 주제 논고를 통해 불교의 인식론에 근거해 사이버문화와 불교의 유사성을 제시하고 나섰다.

윤교수는 "사이버 공간은 무아 무상의 교의를 바탕으로 한 법계 개념. 다시 말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엄연히 살고 있는 현실이 실체성 없는 실재라는 불교의 시각에 대한 좋은 비유가 될 수 있다"면서 사이버 공간의 작용 때문에 생기는 가상과 실재의 관계 문제를 불교 핵심교리의 하나인 불교의 무아(無我) 법계(法界)사상, 그리고 컴퓨터 통신망인 네트워크를 화엄경 사상의 법계연기(法界緣起) 등으로 설명한다.

가상의 공간이지만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온갖 실제적인 일이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은 만물의 겉모습은 그들의 본질적 실체가 아니라는 무아 무상과 같은 양상을 띤다는 것이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실체성 없는 실재라는 법계개념이 가상공간개념과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가상공간은 물리적 공간을 대체하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제 삶의 공간, 현실의 일부 내지 연장이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재와 가상의 이분법을 넘어 삶의 공간, 현실 개념의 확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윤교수는 그 확장의 논리를 초기 대승불교 인식론의 근간을 마련한 용수 중관사상의 이제설(二諦說)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제시를 통해 불교의 인식론은 사이버 공간과 정보를 수단적 장치, 도구로 고안하고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주체성까지 적극적으로 접수시키는 장치로써 정보화사회의 어두운 면모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학술단신

회당학술정보원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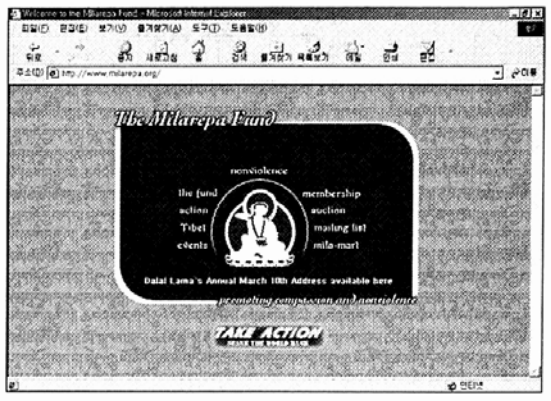
위덕대학교는 16일 중앙도서관과 전자계산소를 통합한 차세대 학술정보지원센터인 회당학술정보원 준공식을 가졌다.

회당학술정보원은 연면적 94만여 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의 지역 최대규모다. 멀티미디어실에서는 각종 영상물 상영과 원격강의 등을 할 수 있으며, 밤 12시까지 대출 반납이 가능한 무인대출 반납기, 인터넷 정보망이 설치된 전산실습실, 토론 학습 및 세미나가 가능한 공동학습실, 800여석의 열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불교학 연구' 창간호 발간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운영위원장 해주스님)가 〈불교학연구〉 창간호를 발간했다.

'화엄의 성기사상과 발보리심' '인식의 성립에 있어서의 촉의 문제' '동아시아에 보이는 원효저술의 영향' 등 98년 겨울부터 시작된 불교분과 월례발표회에서 소개된 논문 10편과 이에 대한 18편의 논평문을 담고 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밀라레파 기금

국제적 비영리 불교운동본부 티베트 비폭력 독립투쟁 지원

밀라레파 기금(Milarepa Fund)은 불교의 보편적인 자비정신과 비폭력주의 정신을 진흥시키기 위해 티베트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비영리 불교 운동기구로, 티베트인들의 비폭력 독립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기금은 또 변화를 달성하는데 강력한 매개체로 상징되고 있는 전세계의 젊은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밀라레파'라는 명칭은 11세기께 티베트의 수행가인 제트슨 밀라레파(Jetsun Milarepa)라는 이름에서 유래하고 있다. 밀라레파는 평범한 티베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였으며, 변화를 위한 인간의 위대한 잠재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성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 삼촌으로부터 혹독한 학대를 받은 것을 기화로, 삿된 마술을 배우거나 삼촌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그의 악행이 스스로에게는 크나큰 업(業)이 되었다.

그 뒤 그는 당시 티베트 불교계의 큰 스님인 마르파(Marpa)를 찾아가 불교의 자비 정신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마르파 스님은 자신이 터득한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수년 동안이나 밀라레파의 깨달음에 대한 열망을 시험하였다. 밀라레파는 스스로 깨달음을 터득한 후 보살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갈 것을 서원하였다.

티베트에서 보살은 '깨달은 사람들의 영웅'이라는 의미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의식의 존재까지도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열반의 경지를 뛰어넘어야만 진정한 보살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티베트인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과거사와는 상관없이 어려운 여건과 시련속에서도 깨달음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례로서 밀라레파는 지금도 티베트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티베트인들은 또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밀라레파가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밀라레파 기금은 '비폭력 운동'과 '오락' 그리고 '교육'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그리하여 밀라레파 기금은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불의(不義)를 종식시키는 각종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자유와 진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우리 티베트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면서 티베트의 평화적인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밀라레파 기금의 비폭력 노선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밀라레파 기금의 비폭력 관련 교육 프로젝트로는 △티베트인을 위한 자유 음악회 개최 △거리 연설 △음악회 관련 앨범 판매 △미래의 자유 티베트 관련 기록 영화 제작 △일상적인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 △무가지 잡지 배포 등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http://www.milarepa.org/

禪 체조 수련 · 금강경 강의

불교TV에 방영중인 禪체조 수련을
혜원스님이 직접 지도합니다.
아울러 금강경 강의와 참선 법회입니다.

선체조 수련 안내	
아침반	오전 9:00~10:20 (월~토)
오후반	오전 10:40~12:00 (월~토) 목요일 제외

금강경 강의 및 참선법회	
금강경강의	목요일 10:30~11:10
참 선 정 진	목요일 11:20~12:00

-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혜원스님의 저서
"선체조 108" "선체조 108비디오"(보급중)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 주 소 : 강남구 개포동 5단지 상가 신일 B/D
■ 전 화 : 02) 445-6188 / 2226-5962

第4回
韓 · 日 親善 淨土佛敎 講演會

▷ 2000년 4월1일(토) · 2일(일) 입장 무료
午前 9:30 ~ 12:00
午後 1:30 ~ 4: 00
▷ 좌담회 4일(화) · 5일(수) 입장 무료
午前 9:30 ~ 12:00
※ 전 일정에 同時 通譯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講 演 內 容

▶ 眞實의 佛敎란 .....
▶ 참된 幸福이란 .....
▶ 人生의 目的이란 .....

眞實을 아는 사람은 幸福하다.
眞實을 求하는 사람은 더욱 幸福하다.
眞實을 獲得한 사람은 가장 幸福하다.

제4회 한 · 일 친선 정토불교 강연회가 아래의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참석하시어 양국의 불자들이 함께 정토불교의 진수를 청문하는 좋은 인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념품 증정)

■ 회 의 장 : 올림피아 호텔2層 임페리얼룸 02-2287-6000
■ 일 시 : 2000년 4월1일(토) · 2일(일) 4일(화) · 5일(수)
■ 문 의 ☎ : 02-2232-3990 (박 창 재)

【현대불교 261호 모법적인 군법당기사와 한바있는 불사에 대한 광고】

군법당 호국관음사 권선안내

군장병들의 심신단련 도량인 군법당호국관음사 신축불사가 건물(법당 한쇠기와 80평, 요사채 40평)은 완공되었는바 내부 불사가 (불상, 탱화, 불단, 단청 등) 이루어지지 못해 낙성식을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시대 젊은 불자들이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익히는 군법당(호국관음사) 불사에 미처 동참하지 못한 불자님들의 십시일반의 정신과 동참을 삼가 발원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법당 신축불사에 동참했던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여 불사원만 회향을 이루어 불은에 보답하겠습니다.

불사동참 내용
불상, 탱화, (후불지장, 신중) 불단 닷집, 단청, 설법대, 경상, 방석, 앰프 그외 기타

불사시주금 계좌 : 광주은행 (083-107-002087)
예금주 : 한영규 (군법당건립추진위원회)

▶ 연락처 :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호국관음사
062)571-7832/260-6163 016)356-5829

제 31 보병사단
군법당건립추진위원회 올림

說法 방법강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에 근거하여…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강의기법, 화술, 상담기법
● 음성학, 태도학, 修辭學,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 서예반 강좌 개설

연수안내
▶ 기 간 : 3개월 과정
▶ 출석강의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10명) ※수시접수
▶ 통신과정 : 1개월중 3주간 통신을 통한 강의 ※마지막주 출석강의
▶ 장 소 : 본연수원 강의실
▶ 지도교수 : 金 暫 會 박사
※ 출장지도 가능합니다. ※

韓國說法硏修院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문의 및 신청 ☎ (02)737-1567, 5925
FAX (02)737-8725